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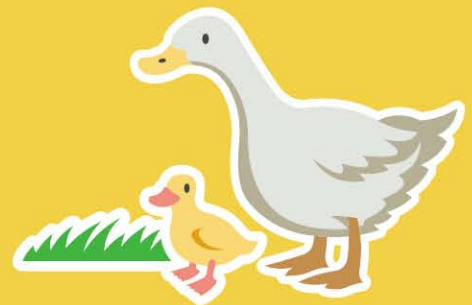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 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등을 게재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의 분류와 품종

오리는 가금류 중에서 가장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키우기 쉽고 성장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닭이나 칠면조에 비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질병에도 강한 편이라 기르기가 용이하다. 성숙한 오리는 추위에 강하여 건조한 깔짚과 바람막이만 있으면 영하 18℃ 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며, 반대로 더운 지역에서도 충분한 물과 그늘만 있으면 활동량과 몸무게의 감소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오리의 분류

오리는 기러기목 오리과의 새 중에서 몸집이 작은 새들의 총칭으로 전 세계적으로 160여 종이 분포하며 국내에는 약 40종이 보고되어 있다. 몸 크기에 따라서 반탐종(0.5~1kg), 소형종(1.5~2kg), 중형종(2.75~3kg), 대형종(3~5.5kg)으로 구분하고, 사육 목적에 따라서는 난용, 육용, 겸용, 관상용 등으로 구분한다.



난용종

▶ 난용종은 연간 200~300개의 알을 낳고 체중이 2kg 내외로 작은 편이다.



인디안 러너(Indian Runner)

동인도제도가 원산지로서 체중은 1.6~2.3kg 정도이며 연간 150~200개의 산란을 한다. 세워놓은 맥주병처럼 곧고 긴 체형이 특징이며 색깔은 백색, 황갈색, 회색 등 다양하다.



캠벨(Campbell)

1900년경 영국의 아델 캠벨 부인이 인디안 러너종 암컷과 르왕종 수컷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으로 체중은 2.3~2.5kg이며 연간 최대 300개 이상까지도 산란이 가능한 대표적인 난용종이다. 카키색을 가진 카키 캠벨이 가장 유명하나 짙은 갈색이나 흰색 캠벨도 있다.

육용종

▶ 육용종은 산란 수가 연 130개 이하로 적고 체중은 4kg 내외이다.



르왕(Rouen)

18세기 프랑스 르왕시 지역에서 유래된 품종으로 4.5~5.4kg의 대형종 오리이다. 색깔은 청둥오리(Mallard)와 비슷하다. 완전히 자라기까지는 약 20주가 걸려 실용종 오리에 비해 느린 편이다. 산란은 연간 약 100개 정도이다.



에일즈버리(Aylesbury)

18세기 초 영국 에일즈버리 지방에서 유래되었다. 체중은 4.0~5.4kg이며 연한 핑크색을 띠는 백색 오리이다. 1870년대에 중국에서 수입된 페킨 종과 교잡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순수한 에일즈버리종은 희귀한 편이다. 연간 30~100개의 알을 낳는다.



머스코비(Muscovy)

남미가 원산지로 암컷은 3kg 내외, 수컷은 4.5kg에서 최고 6kg 이상까지도 자란다. 가금화된 모든 오리는 이 머스코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라드(청둥오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코비는 생김새나 습성이 특이하다. 얼굴에 붉은색의 근육혹(caruncle)이 있으며 나무 위에 올라앉는 특성 상 얇은 물갈퀴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취소성이 강하며 연간 70~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국내에서는 사향 오리 혹은 대만오리로 불리기도 한다.

난육겸용종

- ▶ 난육겸용종은 산란능력이 우수하면서도 체구가 큰 품종이다.



페킨(Pekin)

중국이 원산지로서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대표적인 겸용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품종이다. 전체적으로 백색이고 속 털은 옅은 노란색이며, 부리와 다리는 오렌지색이다. 체중은 3.5~4.1kg 정도로 강건하고 성숙이 매우 빠르며 육질이 좋다. 산란 수는 연 100~200개이다. 국내에는 영국의 체리벨리사와 프랑스의 그리무드사, 오비아사의 개량종이 수입되어 사육되고 있다.



오핑톤(Orpington)

영국 오핑톤에서 닭의 오핑톤 품종을 개발한 윌리엄 쿡이 1900년대 초에 개발한 오리 품종으로 에일즈버리, 르왕, 인디안러너 등을 교잡한 것으로 추측된다. 몸 전체적으로 담황색이며 체중은 2.3~3.4kg 정도이다. 연 200개 정도를 산란하며 육용으로도 우수하다.

관상용 및 애완용

- ▶ 말라드와 깃털 색이 비슷하나 사이즈가 큰 르왕(Rouen), 원앙으로 알려진 만다린(Mandarin), 청록색의 소형오리인 블랙 이스트 인디안(Black East Indian) 등은 관상용 오리로도 사육되고 있다. 0.6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반탐종인 콜(Call)은 소식(小食)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여 외국 시골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다.

